

국내에서도 탄소펀드 출시한다!

산자부, 2월14일 설명회 개최 ... 배출권 시장 2006년 219억유로

국내에서도 2007년 상반기에 온실가스 배출권에 투자하는 <탄소펀드>가 나올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상반기에 국내 첫 탄소펀드를 설정기로 하고 2월14일 관련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설명회에서 정부와 관련기업, 금융권, 컨설팅기업 등이 참여하는 탄소펀드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탄소 배출권 시장동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또 증권회사와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탄소펀드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과정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정부가 탄소펀드 설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탄소 배출권 시장 선점을 위한 선진국들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이 향후 탄소배출권 감축의무를 부여받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국가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을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선진국 중심의 의무이행 대상국에 부여한 상태이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른 국가의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의무 이행대상이 아닌 개발도상국 등의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투자한 뒤 여기서 발생한 배출권을 확보하기도 한다.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도 세계 최고수준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대상국에서 빠져 있어 조만간 감축의무 이행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매년 시장규모도 커져 2005년 94억유로에 불과했던 시장규모가 2006년에는 219억유로로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08>